‘여성문학’ 트러블

-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 비평-

임 지 연 *

〈차례〉

1. 서론
2. 2000년대 문학장의 변동과 분절 양상
3. ‘이상한’ 여성 주체의 등장과 여성 문학장의 비균질성
4. ‘여성문학’ 트러블-난점들과 새로운 구성법
5. 결론

〈국문초록〉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은 곤경에 빠짐으로써 여성문학을 구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빈사상태에 빠졌던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은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문예지에서 여성문학을 주제로 하는 특집은 기획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문학에 대한 무관심이나 가치 절하 때문은 아니었다. 9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문학은 퇴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문학장에서 문학 개념들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성문학의 약화는 여성문학 내부로부터 발생했다기보다 2000년대 문학의 발본적 전환이라는 담론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 건국대학교

문학장의 변동 양상은 첫째,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담론에 의해 격발되었다. 소설의 영역에서는 근대문학이 가지는 한정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 문학 ‘이후’의 문학에 대한 신뢰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시의 영역에서는 ‘미래파’ 논쟁으로 격화되었다. 서정이라는 제도적 문법을 공격하고, 서정시의 단일한 화자 개념을 무화시키고, 동일성의 시적 세계를 무한한 차이의 세계로 변환시킨 미래파 시의 등장은 기존의 서정시에 발본적 전환을 꾀하였다.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역사적 조건은 필연에 가까웠으며, 여성문학비평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곤경에 빠졌다는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여성이라는 고정된 자기 정체성을 해체할 때 여성의 자기 해방은 가능할 것이며,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과정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멸된 ‘여성 문학’이라는 명명법은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까?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적인 것’ 구성하기, 둘째, ‘여성 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 폐기 이후, 새로운 페미니즘 지식 개념 도입하기, 셋째, 여성적인 것의 정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성 개념 새롭게 구성하기.

핵심어 : 여성 문학, 섹스, 젠더, 2000년대 문학장, 가라타니 고진, 미래파, ‘이상한’ 여성 주체, 정치적 보편성

1. 서론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은 곤경에 빠짐으로써 여성문학을 구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빈사상태에 빠졌던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은 자신을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이라고 할 때의 ‘여성’과 ‘문학’

은 21세기에 들어서자 근원적으로 회의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왕의 독법으로 '여성'과 '문학'을 읽을 때 여성문학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방식의 독법으로 여성문학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80-90년대와 같은 여성문학의 지위를 재점유 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여성문학이 구성되는 두 층위, '여성'과 '문학'이 근원적으로 해체되면서 성찰되고 있는 것이 21세기 문학담론의 주요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21세기 여성문학이 어떤 독법에 의해 읽혀지고 구성되는지 2000년대 비평문학장 안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의 문제가 비평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문학장의 변동과 연동된 여성문학의 변화 지점을 파악한 후, 여성문학 이후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여성문학은 관점에 따라 '여성'에 방점이 있을 수 있고, '문학'에 방점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현실적 여성운동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거나 문학적 내용(주제, 소재, 메시지)주의의 차원에 한정된다. 반면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문학을 점검하게 될 때는 일정한 자율성에 의해 확보되는 문학장 고유의 문법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본고는 후자의 위치에서 여성문학을 해석하고자 한다. 문학장 안에서 여성문학의 동적 구성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첫째, 여성 작가는 여성문학의 필수적인 구성 원리인가? 둘째, 텍스트에서 여성인물(화자)과 현실적 여성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즉 여성인물과 현실 여성을 동일시할 수 있는가? 셋째, 여성비평가와 남성비평가의 생물학적 차이와 비평적 관점의 차이는 질적으로 다른가? 넷째, 여성문학의 퇴조 현상은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의 책임인가? 다섯째, 여성문학은 여성성에 대한 내용적 구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문학이라는 상대적 자율영역의 문법에 의한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여성문학을 근본적으로 성찰할 지금 이 시기에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 90년대까지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문제는 여성문학에서 누빔점으로 작용하였는데, 누빔점이란 일정하게 고정된 준거점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은 기왕의 준거점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의 몇 가지 질문들은 회의적인 응답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작가의 지위를 되묻고, 여성인물(화자)과 여성간의 직접적 관계를 재설정하고, 여성비평가와 남성비평가의 생물학적 차이를 자명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여성문학의 퇴조현상을 여성문학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기한 쟁점들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는 지를 파악해야 하며, 여성(성)이라는 내용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형식 혹은 스타일의 입장에서 여성문학을 해석할 때, 여성문학의 변화지점과 향방을 파악하는 데 보다 용이하리라고 본다. 즉 여성문학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개념을 재설정할 수 있을 때, 21세기 여성문학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2000년대 문학장의 상황을 문예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 『문학동네』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문예지는 주류라는 점에서 문학장의 권력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면서도, 당대 문학장의 쟁점을 주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장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1]

---

1) 세 문예지는 일정한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미학적 입장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하다. 『창작과 비평』은 현실 정치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민족, 분단이라는 거시적 문제를 리얼리즘이라는 형식으로 파악하려 하며, 『문학과 사회』는 문학 내부의 미학적 준거점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문학의 미적 자율성에 신뢰를 보내는 에콜이며, 『문학 동네』는 90년대에 출범하면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회』의 양극적 분화를 비판하면서 문학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문학에 대한 관심과 입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고

2. 2000년대 문학장의 변동과 분절 양상

2000년대 문예지에서 여성문학을 주제로 하는 특집은 기획되지 않았다. 이는 페미니즘 혹은 여성문학에 대한 무관심이나 가치 절하 때문은 아니었다. 9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문학은 퇴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문학장에서 문학 개념들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성문학의 약화는 여성문학 내부로부터 발생했다기보다 2000년대 문학의 발본적 전환이라는 담론에 의해 소멸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물론 그 정당함이 여성문학의 내부적 취약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90년대 문학의 특징은 역사라는 거대담론에서 일상이라는 미시담론으로의 변화라고 요약되며, 여성작가 혹은 여성문학의 등장으로 인해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졌다. 황종연은 90년대 문학의 새로운 조건을 역사철학 혹은 거대서사의 몰락에 있다고 보고, 일상성에 대한 관심은 신경숙 이후 많은 여성작가들이 활약하면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 이러한 지적은 90년대 문학과 여성문학의 관계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여성문학의 득세는 90년대 문학 경향을 선도하는 제1계기로 작용하였다. 90년대 문학의 일상성과 미시성은 여성작가들의 일상적 미시성과 사적 내면성의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90년대 문학≒여성문학'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변혁운동의 에너지를 상실한 사회역사적 맥락과 같이 하면서, 집단적이고 이상화된 80년대적 영웅적 개인 주체들은 미시적이고 사적인 내면 주체들로의 변형을 요구받았다. 이때 신경숙을 비롯한 여

있다. 단지 문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좀 더 예민한 촉수를 드리우는 □문학과 사회□에서는 2000년대 문학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주도적으로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여성적인 것'에 대한 새로움에 주목하지만 그것은 '새로움'의 관점이 우선이지 '여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아니다.

2) 황종연 · 진정석 · 김동식 · 이광호(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40쪽.

성작가들의 등장은 변화의 파고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던 셈이다. 이른바 90년대는 적어도 문학에 관한 한, 여성의 시대[3]라는 평가는 정당하다.

이때 여성문학은 심진경이 지적한 것처럼 일정한 한계지점을 노정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즉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 젠더, 육체, 욕망 등에 대한 관심은 여성문학을 생물학적 여성의 그것, 여성들만의 리그로 축소시킨 감이 있으며, 여성관련 담론들 역시 80년대/ 90년대라는 이분법적 도식과 함께 정신/육체, 능동/수동, 공적/사적, 외면/내면이라는 고정적 영역 안에서 게토화한 혐의[4]를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즉 90년대 여성문학은 문학장의 주류로서 문학의 외연을 확대하였지만, 결국 자기정체성을 생물학적 여성성으로 고착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생물학적 자기정체성이라는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성적 서사, 탈내향적 화자, 하이브리드한 주체들의 등장에 의해 거절되어야 하는 문학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우리 문학사의 관습적인 시기구분은 대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90년대와 2000년대는 10년 단위의 관습적 구분인 동시에 다른 세기의 표식지점이라는 점에서 총체적 변화가 기대되었고,[5] 실제 질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떠들썩했던 흥분과 기대와는 달리 21세기적 감각은 2005년 이후에나 실현되었다. 2000년대적인 것은 2005년 이후에나 뚜렷한 징후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학에 대한 보다 발본적인 성찰과정으로 포착되었다. 첫째, 소설의 영역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담론에 대한 논쟁적 반응들이 있었고, 둘째, 시의 영역

3) 김주연, 「1990년대 이후 젊은 평단 지형 읽기 1」, 『문학과 사회』, 2004, 여름, 803쪽.
4) 김형중 · 심진경 · 천정환 좌담, 「뉴미디어 시대 문학의 새로운 지형을 말한다」, 『문학동네』, 2004, 가을, 441~442쪽.
5) "2000년대의 시작을 앞두고 떠들썩하게 들끓었던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막상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잠잠해져버린 것 같다……한껏 부풀어 올랐던 흥분과 달뜸의 분위기 역시 권태롭고 평온한 일상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가고 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루할 정도로 변함없는 일상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문학과 사회』 권두언에서 21세기에 대한 막연한 흥분과 기대감을 읽어낼 수 있다.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 사회』, 2000, 봄, 권두언.

에서는 '미래파' 논쟁으로 격돌되었다. 이는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난 논쟁들이었는데, 이후 비평장 속에서 해석되고 배치되면서 2000년대적 고유성을 부여받았다.

먼저 2000년대 문학의 변별점을 부각시킨 것은 『문학과 사회』쪽이었다. 이광호는 20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적인 것과 2000년대적인 것의 분명한 분할선을 긋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90년대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문학의 자율성 개념을 재확정하면서 새로운 21세기적 인간을 정향하고자 하였다. 그는 화자의 문제를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계몽'과 '고백'이라는 한국문학의 고질적이고 지루한 '단성주의(Monologism)'라는 주류문법의 특성으로 비판하였다.[6] 계몽적 화자와 고백적 화자에 대한 비판은 80년대적 문학원리와 90년대적 원리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2000년대의 탈내향적 일인칭 화자의 점검과정이었다. 탈내향적 일인칭 화자는 80년대와 90년대 문학과의 결별에 대한 분명한 표식이었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을 한국 소설의 새로운 미학적 전환, 발본적 전환이라고 선언하면서 "골빈 화자"[7]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발본적 전환이라는 이광호식 비평적 정지작업은 90년대 여성문학의 특징이었던 내향적 화자에 대한 근원적 비판과 함께 진행되었다. 신경숙의 일인칭 고백체에 의해 진행되었던 자기기원의 탐사는 보편적 가족주의를 수락함으로써 "근대적 인간 윤리학으로 귀환"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90년대 여성작가의 전형이었던 신경숙의 텍스트는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신경숙의 작품이 부정적으로 호명되었던 것은 90년대와 2000년대의 문학적 에피스테메를 구성할 때였다.[8]

첫째, 2000년대 문학의 발본적 전환점은 먼저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

6) 이광호, 「굿바이! 휴먼-탈내향적 일인칭 화자의 정치성」, 『문학과 사회』, 2002, 가을, 1132~1134쪽.
7) 위의 글, 1149쪽.
8) 그럼에도 신경숙 소설의 여성성은 2000년대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의 종언'담론에 의해 격발되었다.[9] 종언 담론은 이 시기 문학의 특징을 검토할 때마다 찬반에 관계없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단골메뉴였다. 2000년대 중후반 내내 고진의 종언 담론은 한국문학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2000년대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가라타니 고진의 종언담론은 윤리적이고 지적인 과제를 짊어지고 공감의 공동체인 네이션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근대문학(소설)의 사회적 역할이 한국에서도 종언을 고했다는 선언적 내용을 골자로 한다.[10] 소설의 영역에서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도발적인 문구에 대해 근대문학이 가지는 한정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근대 문학 '이후'의 문학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측면이 강했다. 가령 황종연은 "근대문학의 어떤 자질이 한국문학에 살아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부심하는 일이 아니라 근대문학 이후에도 문학이 존재할 이유를 생각하는 일"[11]에 더 주목한다. 그는 '근대문학의 종언'이 역사에 있어서 합리성과 문화에 있어서 전체성을 부여하는 목적론적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헤겔적이라고 비판하고, 근대문학 이후가 어떤 양상인지 논제를 삼지 않는 태도에 대해 애석하다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다.[12]

논자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고진의 종언 담론은 텍스트 중심의 미학적 논의가 아니라 문학, 근대문학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라는 태도로 확장되었다. 권성우의 경우, 고진의 명제는 오히려 이 시대 문단 시스템과 문학장에 대한 근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문단시스템, 예컨대 문창과와 국문과 일색의 문인 양성제도, 텍스트 해설에만 골몰하는 비평시스템 등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하였다.[13]

---

9)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은 2004년 □문학과 동네□겨울호에 게재되었다가 2006년 조영일에 의해 □근대문학의 종언□도서출판 b) 번역물로 출간되었다.
10)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43~86쪽.
11) 황종연, 「문학의 묵시록-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을 읽고」, □현대문학□, 2006.8, 198쪽.
12) 위의 글, 199~215쪽 참조.

종언 담론은 그간 문학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던 리얼리즘론자들이나 문학의 자율성에 비중을 두었던 모더니즘론자들이 모두 근대문학의 옹호자였음을 드러내고, 이는 어느 정도의 세대론적 차이를 지형화하기도 하였다. 최원식과 황종연의 분명한 미학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보편적 가치나 역할에 대한 신뢰는 동일한 지반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조영일, 강유정을 위시한 2000년대 신진비평가들은 문학 혹은 근대문학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필요성과 함께 2000년대 작가들의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들을 타진하였다는 점에서 세대론적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소설적 특징은 90년대적인 것과의 분명한 차이화 작업 속에서 '아버지'죽이기에 별 관심이 없고, 웰메이드 서사에 무심하며, 소설이라고 부르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에 있었다는 평가되었다.[14]

둘째, 2000년대의 문학의 근원적 성찰은 시의 영역에서는 '미래파' 논쟁으로 격화되었다. 권혁웅은 '2005년 젊은 시인들'이라는 부제의 글 「미래파」를 발표하면서 요령부득의 장광설이거나 경박한 유희의 산물, 화자가 혼란되어 있으며, 사회역사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받았던 2000년대 일군의 젊은 시인들을 적극 옹호하면서, "이들의 작품이 곧 가까운 미래에 우리 시의 분명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정할 날이 올 것"이라는 과감한 선언을 하였다. 그는 "80년대 시인들이 걸머져야 했던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채무의식이 없고, 1990년대 시인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서정이 없다"는 새로운 시인군에 대하여 세대론적 평가를 내린다.[15]

이후 '미래파'라는 명칭은 2000년대적인 새로운 경향의 시와 시인을 담아내는 담론의 주인 기표가 되어갔다. 특히 미래파 시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지지를 보였던 『창작과 비평』측에서 발표된 황현산의 글 「완전소중

13) 권성우, 「추억과 집착-'근대문학의 종언'과 그 논의에 대하여」, 『안과 밖』, 2007, 139~145쪽.
14) 강유정, 「돌아온 탕아, 수상한 귀환」, 『세계의 문학』, 2009, 봄, 310쪽.
15) 권혁웅, 「미래파」, 『미래파』, 문학과 지성사, 2005, 148~171쪽.

시코쿠」[16]는 미래파 시가 2000년대 시의 분명한 대안임을 승인한 글이었다. 이 글은 미래파 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황병승의 동성애적이고 비서정적이고 하위문화적이며, 소통불가의 시적 화자라는 특성을 미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미래파논쟁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 평가되었다.

시의 영역에서 미래파논쟁은 다기한 논점들로 확산되었다. 대체로 시의 사회적 역할을 신뢰하는 비평가군들은 미래파시의 새로움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시의 역사성, 사회성, 소통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미적 형식의 쇄신에 대해 찬성하지만, 비사회적 자폐성, 엘리트주의, 난독성, 독자와의 소통불가,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권혁웅을 위시한 2000년대 등단 비평가들은 이들의 미적 형식 뿐 아니라, 사회성, 정치성, 소통의 문제, 시의 존재론적 원리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해명하면서 미래파의 시를 적극 옹호하였다. 문학의 정치성, 사회성, 소통성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런 점에서 시란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90년대 이전의 시담론이 구성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들이 제공되었다.

미래파적 경향성은 서정성의 제도적 문법을 공격하면서 서정시의 단일한 '화자' 개념을 무화시키거나 다성화시키며, 시적 세계관인 동일성의 세계를 차이의 세계로 변환하고, 장광설과 비속적이고 하위문화적인 언어미학을 중시한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적 주체의 비정체화의 전략이었다. 여성성에 한정하여 본다며, 여성은 기왕의 여성성에 고착되지 않는 '이상한' 젠더를 발명하였다. 황병승의 경우, '여장남자'라는 혼종적 젠더를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법으로서의 의미언어를 급진적으로 해체해 가거나,[17] 김행숙의 경우 소멸되어가는 중인 주체의 물질적 형상을 보여주었다.[18]

---

16) 황현산, 「완전소중 시코쿠」, 『창작과 비평』, 2006, 봄.
17)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18) 김행숙, 『이별의 능력』, 문학과 지성, 2007.

2000년대 비평문학장의 전개과정을 장황하게 살펴본 이유는 이 시기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2000년대 문학 어디에도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여성문학은 90년대 문학을 식별할 때나 개별적 여성 작가의 텍스트를 논할 때 사용되었다. 여성억압의 기원이나 문학적 양상, 여성적 정체성과 여성적 글쓰기의 관계, 여성성과 남성성의 문제와 같은 기왕의 여성문학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21세기의 문학적 특성이 20세기적 문학과는 다르다는 관점 속에서 기왕의 여성문학론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개별적 문학 텍스트에서 주체들은 회의되면서 해체의 양상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비평문학장에서의 논쟁 과정은 90년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학개념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소설의 인물들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리는 통상적인 이미지의 차원을 멀리 벗어나 있거나(천운영),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윤성희).[19] 여성 인물들은 기왕의 여성성이라는 범주에 들 수 없는 존재미달의 존재로 그려지며,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적 질문도 하지 않는 비여성에 가깝게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관습적인 성차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의 모호함"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였다.[20]

시의 영역에서도 주체에 대한 해체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가령 김행숙의 시는 "어떤 것으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한대로 늘어뜨려서 그것을 점차 희박하게 하기"[21]라는 점에서 희박화된 주체의 얼굴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시적주체의 특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문학장의 대안

19) 박혜경, 「문명의 심연을 응시하는 반문명적 사유-천운영 · 윤성희 · 편혜영의 소설」, 『문학과 사회』, 2005, 여름, 192~202쪽.
20) 심진경, 『여도는 목소리』, 자음과 모음, 2009, 202~203쪽. 저자는 강영숙, 배수아, 천운영의 소설들 속에서 '성차의 모호함'을 포착하고 있다.
21) 임지연, 「감각의 세계에서 기화(氣化)하거나 질주하는」, 『미니마 모랄리아, 미니마 포에티카』, 천년의 시작, 2010, 310쪽.

으로 자리잡은 미래파 시의 전형을 보여주며, 황병승은 동성애적이고 무의식적인 시적 주체와 화법의 혼종성을 통하여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인간의 정체성을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담론화되었다.

이처럼 문학적 인물들은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성차의 범주에서 말해질 수 없으며, 정상 범주의 인간성의 결여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여성문학이라는 문제제기 자체를 무화시킬 뿐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인간성 자체를 회의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미 인간 아닌 인간의 형상 속에서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성차의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역사적 조건은 필연에 가까웠으며, 어쩌면 여성문학비평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곤경에 빠졌다는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여성이라는 고정된 자기 정체성을 해체할 때 여성의 자기 해방은 가능할 것이며,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과정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는 여성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득세했던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은 왜 문학장에서 사라져버렸는가? 그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1차적 책임이 여성문학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문학장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해체 욕망은 문학이라는 제도, 즉 화자, 인물, 서술법, 언어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동시에 여성성, 여성 작가, 여성 인물이라는 여성적 정체성 전복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90년대까지의 여성문학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갔다. 물론 거기에는 서구의 탈구조주의적 이론과 논리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전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탈구조주의적 해체 감각을 수용하는 문학장의 자기 욕망이 제1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상한' 여성 주체의 등장과 탈여성문학장의 비균질성

최근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이상화된 여성성에 고착된 보편적 정체성, 이성애적 규범에서 비롯되는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이분화된 정체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통해 여성 혹은 여성성이라는 범주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는 "여성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이 집단을 위해 어떤 정치적 주장도 하기 어렵도록 "여성들"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22]는 평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정체성은 문학과 인간이라는 고정된 정체성 해체 전략구도 하에서 소멸되어 가는 중이다. 따라서 기왕의 여성성 없는 새로운 여성인물들이 시와 소설의 텍스트에서 출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비평은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도덕적 역할을 역사적으로 요청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근대문학은 계몽적이거나 이상화된 드높은 문학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문학은 계몽의 주체, 유토피아적 주체의 권능을 누렸던 문학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여성문학은 '여성'과 '문학'에 대한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야하는 이중과제를 떠맡게 되면서 약화 혹은 소멸되어갔다.

그럼에도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 혹은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은 사라졌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전까지의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은 소멸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자의식은 은폐된 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첫째, 급진적 차원에서의 여성적 정체성 해체의 방식, 둘째 온건한 차원에서의 여성성 재현의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성적 정체성 해체의 방식은 소설의 영역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22) 타니아 모들스키, 노영숙 역, 『여성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8, 31쪽.

기왕의 여성성 범주에 안착할 수 없는 '이상한' 여성 주체로 나타난다. 비평의 경우, 2000년대 문학의 여성인물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여성성을 탈주하기 위한 비평적 구도가 선제되어 있다.

> 다시 말해 세계와의 불화로 인해 고통스러운 자기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한 개인의 절망적인 내면세계나,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혹은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탐구하는 인간 내면의 어떠한 적극적인 기획도 발견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기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소설적 탐색이,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인식하는 거점으로서의 개인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세계 사이에 놓인 대립, 혹은 불화의 양상들을 그려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천운영과 윤성희, 편혜영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인적 주체의 이름으로 세계 속에 거주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세계와의 소통을 꿈꾸는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의 존재가 지닌 세계와의 불화성은 그들이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로의 소속을 열렬히 갈망하는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다.[23]

2000년대 소설에서 '여성적인 것'은 인용문에서처럼 '자기 정체성'의 강박으로부터 멀어진 인물들로 해석되었다. 90년대 여성인물들이 여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2000년대 여성 인물들은 애초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그러므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그 혼란의 탐색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기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학적 특성으로 삼는다. 정체성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무관심하다는 점, 그래서 이미 규율권력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2000년대 여성인물들은 기존의 여성

23) 박혜경, 앞의 글, 192~193쪽.

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하고 낯선 성격으로 해석되었다. 이들은 여성성을 탈문맥화 하고 여성을 지워가는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잡종적 주체를 고안하며,[24] 나아가 인간이라는 보편적 정체성까지 전복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읽혀진다.

이는 2000년대 비평의 일관되고 반복적인 독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성, 여성, 여성 인물, 여성 작가라는 명칭들은 비평장에서 자연스럽게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자명해지지 않는 방식”[25]은 2000년대 비평원리였다. 따라서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은 90년대라는 과거의 유물을 호명할 때나 사용되었고, 여성작가라는 명칭도 잘 사용되지 않았다. 겨우 “그녀들”[26]이라는 정도에서 생물학적 특성의 흔적 정도만 기입할 뿐 여성이라는 명백한 성별 구분은 불필요하였다.

시의 영역에서도 미래파 시로 불리는 2000년대 시의 특징은 서정시라는 제도를 전복하는 데 비평의 관심이 선제되었다. 시인의 위치란 “항구적인 정체성을 지닌 일자 또는 시의 중심이 아니”며, “시인은 시 작품이라는 주체적 거점 구성에 참여함으로써만, 참여하는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주체 과정’의 ‘일부’일 뿐”[27]이라는 지위를 갖는다. 동일화(주객일치)의 시적 장치를 통해 주체와 세계의 불화를 화해로 전이시키는 서정시의 장르적 기획을 주도했던 시인과 화자의 역할과 위치는 ‘주체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래파 시는 엽기적일 뿐 아니라 하위 문화적 요소들, 캠프적 감수성, 무국적적 혼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일사불란한 하나가 아니라 고독한 다수이고, 도착적이고 반고백적이며, 환상적이고 비계몽적인 시는 불투명한 시대가 낳은 가장 투명한 증상들[28]이라고 적극 옹호되었다. 김행숙, 김민정, 진은

24) 최성실, 「그대가 부르는 ‘이름’, 그것이 진정 내 ‘이름’이란 말인가-잡종적 주체를 위한 변론」, 『문학과 사회』, 2002, 가을, 1167~1171쪽.
25) 정혜경, 「백수들의 위험한 수다」, 『문학과 사회』, 2005, 여름, 191쪽.
26) 김미현, 「변온(變溫)의 소설」, 『문학과 사회』, 2007, 겨울, 367쪽.
27) 함돈균, 「잉여와 초과로 도래하는 시들」, 『창작과 비평』, 2009, 겨울, 39쪽.
28) 신형철, 「앓는 세대의 난경과 난무」, 『문예중앙』, 2006, 봄, 115쪽.

영, 이민하 등의 시인들은 기존의 여성성이라는 틀로 해석될 수 없는 이상하고 낯선 화자를 통해 서정시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의미를 감각적 차원에서 탈맥락화 한다고 해석되었다.

이는 2000년대 문학의 탈여성성이 여성적 자의식이라는 매개 없이 문학 제도와 정체성 해체라는 구도 속에서 래디컬한 방식으로 해석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적인 것의 급진적 해체라는 비평장의 선제적 독법은 개념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것의 결과적 효과는 동일하였다. 기왕의 문학제도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급진적 해체의 경향 속에서 여성성, 여성문학, 여성적인 것의 의미는 탈색되었다. 그럼에도 기왕의 여성문학이 기존의 여성성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자의식적 노력보다 더 급진적으로 여성성의 범주를 탈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협소한 의미의 제도적 여성문학의 입장에서는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넓은 범주의 여성문학의 차원에서 본다면 곤경과 난경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구원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 문제는 다른 지점에서 재현과 반복, 고착의 논리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여성작가의 텍스트들을 해석할 때 발생되는 지점에서였다. 소설의 영역에서는 신경숙의 텍스트들이 대표적이고, 시의 영역에서는 나희덕과 김선우의 텍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경숙은 대표적인 90년대 여성 작가이다. 90년대 소설의 미학적 특징인 내면성, 독백성, 개인성, 자율성은 신경숙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신경숙은 2000년대에도 단편, 장편, 역사소설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해간 작가이다. 신경숙이 비평장의 핵심논점으로 포획될 때 여지없이 여성성의 그물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그의 여성적 미덕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을 뿐 아니라, 비평가들에 의해서도 옹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옹호의 양상은 다양하다. 신경숙 소설의 사랑과 성의 문제는 남녀관계와 가족관계, 성애(이성, 동성)/성차의 문제뿐 아니라, 계급과 환경의 문

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미시서사의 사회성 환기,[29] 또한 내 안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밖으로 옮겨 타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통의 욕망으로의 확장이라는 긍정성,[30] 언어와 비-언어의 경계를 암시하는 의미의 원천으로서의 '비명'이라는 여성적 몸의 언어와 몸의 미학,[31] 내면에서 세계와의 화해에 도달하려는 경향[32] 등으로 긍정되었다. 신형철의 경우 신경숙 소설의 여성적 가치나 익명성에 대한 불만 속에서도 그의 전체 소설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대담을 진행하기도 한 바 있는데,[33] 미래파시를 적극 옹호했던 비평가의 태도로서는 아이러니컬하다고 할만큼 신경숙의 문단적 입지는 굳건하다. 특히 모성성을 주제로 하는 장편 『엄마를 부탁해』[34]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며 신경숙의 여성성이 평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류보선은 신경숙의 모성성을 "순수증여"[35]라는 반자본주의적 가치와 신성화된 모성적 가치로 파악하면서 전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평장에서 신경숙과 신경숙의 텍스트는 90년대적인 여성성의 가치가 어떻게 2000년대에도 긍정적 가치를 영속화하는 지를 가늠하게 하며, 동시에 여성성이라는 고착된 영역이 미학적 새로움이라는 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36]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면서 신경숙의 여성성 논의는 논쟁적 성격을 띠게 된다.

강유정은 『엄마를 부탁해』의 "어머니상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신화적

29) 한기욱, 「우리 시대의 사랑 · 성 · 환경 이야기」, 『창작과 비평』, 2003, 봄, 68~69쪽.
30) 정혜경, 「소통의 문제와 이야기하기의 방식」, 『문학과 사회』, 2000, 여름.
31) 신수정, 「비명과 언어-여성을 말한다는 것」, 『문학과 동네』, 2002, 여름, 361~366쪽.
32) 이재영, 「상실의 세계, 세계의 상실-신경숙론」, 『창작과 비평』, 2001, 겨울, 265쪽.
33) 신경숙 · 신형철 대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가을.
34)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35) 류보선, 「'엄마'라는 유령들」, 『문학동네』, 2009, 봄, 148쪽.
36) 유희석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찬반논란을 검토하면서 결국 "모성이 "되돌아온 감옥"이기는커녕 그런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꾼 한 인간의 욕망을 숨기고 있음을 금발 알아차렸을 것"이며 "모성의 신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유희석, 「'엄마'의 시대적 진실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 2009, 여름, 265~280쪽.

모성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합의된 기억 속에 간직된 상상적 이미지와 닮아 있는 것"이고 "엄마는 고향, 자궁, 향수로 대체될만한……가치의 현현"으로서 "가족 이데올로기의 복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반론의 양상은 정치하거나 전면적이지는 않았다.

이처럼 신경숙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문제는 모성적 신화, 이상화된 여성성의 미학적 재현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 점에 대한 비평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설사 여성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 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신경숙 소설의 대중적 옹호를 증폭시키거나 여성성 재현에 대한 긍정성을 증폭시키는 역설적 효과로 이어졌다.

시의 영역에서는 나희덕과 김선우의 시가 생태성과 여성성이 결합되면서 이상적으로 상상된 여성성의 이미지들이 서정성의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평가된다.[37] 이처럼 몇몇 작가에 한정하여 기존의 여성성 담론은 미학적으로 쇄신되었을지라도 여성의 정체성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재현·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평장에서 이들을 다루는 비평 주체가 여성비평가 혹은 남성비평가라는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 이해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는 비평적 세대론의 문제처럼 보인다. 이른바 문학권력에 접근해있는 원로급 비평가의 경우 신경숙, 나희덕, 김선우에 대한 평가는 보수적인 측면이 크고, 2000년대 등단비평가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조영일의 경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한국문학의 부활이라기보다 몰락"이며 "무한헌신의 한국형 어머니"를 통해 "극단적인 멜로드라마(신파극)"의 한 예로서 한국문학의 재건을 꾀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남성/여성 비평의 젠더적 효과에 의한 것이라기 보기 어렵다.

---

37) 정과리, 「암전-나희덕론」, 『문학과 사회』, 2001, 가을.
나희덕, 「작가의 편지」, 『문학과 사회』, 2001, 가을.
나희덕, 「꽃의 뿌리를 향한 행려의 기록」, 『창작과 비평』, 2006, 가을.
이홍섭, 「생태정원을 향한 오체투지-김선우의 시세계」, 『문학과 동네』, 2003, 가을.

이처럼 2000년대 문학의 여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한 문학제도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함께 출몰하는 탈정체적 젠더들, 즉 '이상한' 여성 주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왕의 여성적 정체성에 고착된 신화화된 모성성, 이상화된 여성성이 지속적으로 확대 긍정되고 있다. 이는 (탈)여성문학장이 젠더적 균열을 증상화하며, 담론이 균질화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전히 여성성에 대한 고착적 인식이 끈질기게 작용하기 때문이다.[38]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은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 여성성에 대한 관심은 의도적 무관심, 혹은 의식적 탈정체화의 구도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탈여성성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이상한' 여성 주체의 축과, 낯익고 익숙한 '이상화된' 신화적 여성 주체의 재현이라는 축이 동시에 존재한다. 탈여성문학장의 비균질성은 이른바 '여성 문학'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로도스 섬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춤출 필요가 있다.

4. '여성문학' 트러블 : 난제들과 새로운 구성법

90년대 여성문학 비평장은 다양한 여성비평가의 등장과 함께 활발하게 담론화가 이루어졌다. 김주현에 의하면 90년대 여성비평군은 따뜻한 것・젖은 것으로서의 여성 언술(김용희), 생명의 존재태로서의 여성의 말

38) 이러한 인식태도는 여성성을 구성적이고 가변적이며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개념 구성을 하는 비평가의 글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최성실의 경우에도 "피부색, 성gender, 태생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이념들을 구성하는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글에서처럼 gender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젠더는 고정불변한 어떤 것이라는 입장이 개입되어 있다.
최성실, 「국가주의라는 괴물과 성 정치」, 『문학과 사회』 2003, 여름, 803쪽.

(황도경), 페미니즘에 대한 반성적 인식(김미현), 여성 재현의 언어와 사라진 여성을 위한 재언어화의 모순 수행(신수정), 소외된 여성의 이미지 언표화(최성실), 희생의 모성애 긍정적 시선(정끝별), 남녀 통합적 시각(백지연)[39]이라는 다기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탐지해갔다. 이 시기 여성문학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90년대 여성문학은 자신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게토화하였다는 평가[40]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문학의 전략적 방향이 잘못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성의 새로운 구성법이 일제히 '여성'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여성으로만 환원되는 여성문학의 아포리아는 여기에 있었다.

2000년대 여성문학은 탈여성문학이라고 명명해야할 만큼 자기 정체성의 해체 구도 하에서 여성이라는 범주는 희미해지거나 소멸되었다. 이것을 여성문학의 곤경이라고 한다면, 사실 곤경은 자기구원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경(解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문학장의 향방이 탈정체화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적 정체성의 문제는 '이상한' 여성 주체의 등장과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에서는 기왕의 여성성에 고착된 이상화된 여성성이 대중적 환호와 비평적 옹호 속에서 재현·확대되면서 비균질적인 장을 형성하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후의 탈여성문학의 가능성을 어떤 지점에서 탐색할 것인가에 있다. 기왕의 여성문학은 곤경에 처해 있지만, 문학에서 '여성적인 것'의 문제는 지속적인 텍스트 구성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탈여성문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탈여성문학이란 제도적 명명법의 차원이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 (탈)여성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그러한 한에서 탈여성문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몇가지 방향

39) 김주현, 앞의 글, 804~814쪽.
40) 김형중·심진경·천정환 대담, 앞의 글, 442쪽.

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적인 것' 구성하기. 여성성에 대하여 상당한 복잡성을 보여주는 시를 쓰는 김혜순에게 철학자 서동욱은 "근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성별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익명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까"라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에 대하여 김혜순은 "익명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41]이라고 응답하였다. 김혜순 시의 여성적인 것은 기왕의 여성성을 근원적인 것으로 고착시키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탈주를 이행하기도 하는 모호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의 응답은 남성/여성 구도를 벗어나는 익명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김혜순의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부터 생성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왕의 여성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주하지 못한다. 즉 김혜순의 익명적인 여성성도 여성성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여성적인 것은 여성으로 자동환원되는가? 자동환원의 시스템을 오작동시키는 지식개념들이 발명되어야 할 때이다.

또한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성의 문제는 내부적 차이들을 검토할 때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계급・계층・인종의 차이들, 내부 권력의 차이들, 섹슈얼리티의 차이들(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고려할 때 여성적인 것은 단일한 범주로 구획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여성적 체험은 동일한가? 딸들의 연대는 동일성으로부터 나오는가? 여성적 정치성은 이상화된 여성적 범주로부터 발생하는가? 여성적 억압이라는 공통적 조건으로부터 정치성은 생성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정당한 응답은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내부적 차이들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정체성으로서의 정치성은 페미니즘적 해방의 에너지를 발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필연적으로 노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은 폐기해야 하는가? 필자는 좋다

41) 김혜순・서동욱 대담, 「몸 속의 물을 깨워내기」, 『문학동네』 2004, 가을, 103~104쪽.

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폐기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으로 2000년대 여성적인 것을 포착할 수 없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그 용법은 이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가령, 황병승의 시는 이성애적 가부장제 트라이앵글에서 쫓겨난 아이의 꼭짓점을 갖고 있다. 쫓겨난 아이가 만드는 트라이앵글에는 엄마와 아버지의 꼭짓점이 지워진다. 쫓겨난 아이는 “나의 진짜는 뒤통수”이거나 “항문”(「커밍 아웃」)이며, “나에게도 자궁이 있다”(「여장남자 시코쿠」, □여장남자 시코쿠□)고 커밍아웃한다.[42] 2000년대 시문학장에서 아비살해 욕망은 상식적인 것이 되었지만 어미 살해는 드문 현상인데, 황병승의 시에서 아비는 간단하게 살해되었을 뿐 아니라, 어미조차 과감히 모독한다. 모성, 여성, 이성애라는 젠더적 범주를 간단하게 전복하고 자신은 자궁달린 여장남자라는 시적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황병승은 생물학적으로 남성 시인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병승의 시는 기왕의 여성문학의 범주에서 해명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 기왕의 여성문학은 2000년대 이후의 탈여성적인 것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다. 여성문학의 곤경은 여기에 있다. 여성문학의 자기 지위를 폐기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폐기 이후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한다면 그것의 외연과 내포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이다. 여기에는 새롭고 정치한 페미니즘 지식 개념이 개입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여성문학은 여성적인 것의 정치적 보편성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탈여성적 정체성의 전략이 차이에 의한 무한대의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여성 특수자의 조건 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 차원에서 보편성의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여성문학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소멸될 수 있지만, 문학에서의 ‘여성적인 것’의

42) 임지연, 앞의 책, 42쪽.

문제는 문학이 있는 한 지속되는 의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적인 것이 갖는 해방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보편성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탈여성적인 것의 보편성 문제를 문학 텍스트에서 포착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담론들은 탈정체화를 통한 탈여성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왕의 문학담론에서 제기되는 탈정체화 논리, 성차의 이분법 극복, 여성성의 확대, 타자의 발견이라는 논리[43]로만은 새로운 (탈)여성문학의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점에서 주디스 버틀러가 여성적인 것의 보편성을 정치성의 차원에서 읽어내려는 시도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섹스/젠더/섹슈얼리티의 분화적 용법을 전복하기 위해 수행적이고 구성적이며, 비본질적인 문화적 구성물로 젠더 개념을 논리화[44]하면서 본질주의, 생물학주의, 보편주의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노력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후 보편성에 의 문제를 정치성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작업[45]으로 이동해갔다. 보편성 개념은 젠더화 개념에서는 적대적 개념이었음에도 보편성의 문제로 전이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버틀러의 보편성은 정치적 해방의 에너지와 관련되는데, 이는 형식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비구성적 보편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43) 새로운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문해가고 있는 비평가 심진경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강영숙의 소설 속에서 중간자적 존재, 평범한 존재들의 혼성적 젠더, 복수적 젠더'들', 타자의 발견에 대해 주목하고, 성차의 이분법을 벗어나면서 여성성의 범주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다. 정당한 탐색임에도 성차의 이분법 극복, 여성적 범주의 탄력적 확대, 타자의 발견만으로는 새로운 여성문학의 정치성, 즉 해방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 심진경, 앞의 책, 225쪽.

4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14~147쪽.

45)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슬라보예 지젝, 박대진 외 역,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24쪽. 버틀러는 "불가능한 동시에 필연적인 보편자라는 역설적 개념을 유지하는 게 고유한 이론적 이유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훨씬 생산적이지 않은가"를 물으며, 보편성의 정치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그는 보편성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며, 보편성은 '아직은 아닌not yet'이라는 의미로서 보편성이라는 실체를 거부하고,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을 본질적 구성요소[46]로 파악한다. 피억압적 여성이 여성의 보편적 인간성을 말할 때, 보편성은 유령적 허구로 드러나고 이때 보편성에 대한 요구는 정치성[47]을 발생한다고 본다.

여성의 비정체화 전략이 극단화될 때, 차이는 무한정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는 해방의 정치적 에너지가 극대화되기 어렵다. 버틀러는 보편성의 문제를 비본질적 보편성으로 구성하면서 정치적 에너지를 포착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보편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0년대 비평담론 속에서 여성의 비구성적 보편성에 대한 논의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사실 보편성의 정치성을 포착하는 일은 따로 특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복잡한 이론적 개념과 논리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편성의 문제는 여성문학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버틀러의 입장처럼 여성이라는 최소한의 보편성을 탈구성적으로 구축할 때 진정한 정치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탈여성문학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을 헤쳐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천적이고 이론적이며, 문학적인 다층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

46) 위의 책, 65~67쪽.

47) 가령 랑시에르가 리요타르의 숭고개념을 재검토하면서 차이를 무한정 재확인하는 작업은 미학과 정치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방의 약속에 대한 미적 중지와 연결되면서 결국 타자의 법에 대한 복종을 무한히 기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통해 정치를 제기하는 논리도 이와 연관된다. 차이의 인정이 차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영원한 증언으로 고착시킬 때, 여기에는 차이를 변화시키려는 해방의 의지를 무한정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제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역,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164~167쪽.

5. 결론

2000년대 여성문학이라는 명명법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곤경에 빠진 여성문학이 왜 곤경에 빠졌는지, 어떻게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되어 왔다. 본고는 소멸되고 회피되어 왔던 2000년대 여성문학장에서 '여성'의 문제가 비평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문학장의 변화와 연동된 여성문학의 시스템을 파악한 후, 여성문학(탈여성문학) 이후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곤경에 처한 2000년대 여성문학은 곤경에 빠짐으로써 여성문학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빈사 상태에 빠졌던 여성문학이라는 제도는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문학의 발본적 변화구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회의와 비정체화라는 전략에 의해 구성되었다. 여성문학 이 흐름과 연동되면서 '여성'에 대한 고정된 젠더 정체성을 전복하려는 문학적 흐름에 의해 탈여성화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00년대 문학장의 변동은 소설 영역에서는 가라나티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담론에 의해, 시 영역에서는 '미래파' 논쟁에 의해 격화되었다. 근대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존 서정시의 고유한 지위를 해체하려는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학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기왕의 제도화된 문학개념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문학 형태가 나타나고, 기왕의 정체성에 대해 근원적 회의가 발원되고 있었다. 이 시기 어디에도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용어를 찾아볼 수 없으며, 여성문학은 90년대 문학을 식별할 때나 호명되는 역사적 개념이었다. 이처럼 200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문학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역사적 조건은 필연에 가까웠으며, 여성문학이 곤경에 빠졌다는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해체할 때 여성의 자기해방은 가능할 것이며,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과정적 주체를 형성할 때 새로운 여성문학이 정초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000년대 여성문학 개념은 소멸되었지만, 여성성은 새롭게 제출되었다. 그것을 '이상한 여성 주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문학의 여성성은 고정된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정체성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오히려 무관심하고, 규율권력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탈)여성문학장은 다른 지점에서 기왕의 고정된 여성성을 재현·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균질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신경숙의 텍스트에서 비평장과 독서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옹호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신경숙의 모성성은 헌신적인 젠더 여성의 특성과 생물학적으로 환원되는 모성성을 그려내고 있는데, 비평장에서 왜곡된 채 옹호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그렇다면 (탈)여성문학은 어떤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적인 것' 구성하기. 둘째, 기왕의 여성문학이라는 제도적 명명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페미니즘 지식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구성하기. 셋째, 여성적인 것의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여, 여성적인 것이 갖는 해방의 에너지를 포착하기.

참고문헌

1. 기본 자료(문예지)

강유정, 「돌아온 탕아, 수상한 귀환」, 『세계의 문학』, 2009, 봄.
권두언, 「이번 호를 내면서」, 『문학과 사회』, 2000, 봄.
김주연, 「1990년대 이후 젊은 평단 지형 읽기 1」, 『문학과 사회』, 2004, 여름.
김미현, 「변온(變溫)의 소설」, 『문학과 사회』, 2007, 겨울.
김혜순·서동욱 대담, 「몸 속의 물을 깨워내기」, 『문학동네』, 2004, 가을.

김형중 · 심진경 · 천정환 좌담, 「뉴미디어 시대 문학의 새로운 지형을 말한다」, 『문학동네』, 2004, 가을.
나희덕, 「작가의 편지」, 『문학과 사회』, 2001, 가을.
나희덕, 「꽃의 뿌리를 향한 행려의 기록」, 『창작과 비평』, 2006, 가을.
류보선, 「'엄마'라는 유령들」, 『문학동네』, 2009, 봄.
박혜경, 「문명의 심연을 응시하는 반문명적 사유-천운영 · 윤성희 · 편혜영의 소설」, 『문학과 사회』, 2005, 여름.
신경숙 · 신형철 대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신수정, 「비명과 언어-여성을 말한다는 것」, 『문학과 동네』, 2002, 여름.
신형철, 「앓는 세대의 난경과 난무」, 『문예중앙』, 2006, 봄.
유희석, 「'엄마'의 시대적 진실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 2009, 여름.
이광호, 「굿바이! 휴먼-탈내향적 일인칭 화자의 정치성」, 『문학과 사회』, 2002, 가을.
이재영, 「상실의 세계, 세계의 상실-신경숙론」, 『창작과 비평』, 2001, 겨울.
이홍섭, 「생태정원을 향한 오체투지-김선우의 시세계」, 『문학과 동네』, 2003, 가을.
정혜경, 「백수들의 위험한 수다」, 『문학과 사회』, 2005.
정과리, 「암전-나희덕론」, 『문학과 사회』, 2001, 가을.
정혜경, 「소통의 문제와 이야기하기의 방식」, 『문학과 사회』, 2000, 여름.
최성실, 「그대가 부르는 '이름', 그것이 진정 내 '이름'이란 말인가-잡종적 주체를 위한 변론」, 『문학과 사회』, 2002, 가을.
최성실, 「국가주의라는 괴물과 성 정치」, 『문학과 사회』, 2003, 여름.
한기욱, 「우리 시대의 사랑 · 성 · 환경 이야기」, 『창작과 비평』, 2003, 봄.
함돈균, 「잉여와 초과로 도래하는 시들」, 『창작과 비평』, 2009, 겨울.
황종연, 「문학의 묵시록」, 『현대문학』, 2006.8.

2. 단행본

권혁웅, 『미래파』, 문학과 지성사, 2005.

김행숙, 『이별의 능력』, 문학과 지성, 2007.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심진경, 『떠도는 목소리』, 자음과 모음, 2009.
임지연, 『미니마 모랄리아, 미니마 포에티카』, 천년의 시작, 2010.
황병승, 『여장남자 시코쿠』,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황종연 외,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역,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8.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주디스 버틀러, 에르네스 라클라우, 슬라보예 지젝, 박대진 외 역,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타니아 모들스키, 노영숙 역, 『여성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8.

3. 논문

권성우, 「추억과 집착-'근대문학의 종언'과 그 논의에 대하여」, 『안과 밖』, 2007, 127~147쪽.

Abstract

Trouble of 'Women's Literature'

-Criticism on women's literature of 21st century that faced predicament-

Im, Ji-yeon

To speak paradoxically, 'women's literature of 21st century which encountered predicament' is rescuing itself - women's literature - by the very fact of its having fallen into plight. Because the institutional nomenclature of women's literature is revitalizing itself to recover strength by putting itself into a crisis.

In literary magazines of 21st century, special issue dealing the subject of female literature has not been planned yet. This is not because of diminished interest or depreciated value of women's literature. Compared to 1990s, women's literature can be said to have declined, which share the same context with the changed concepts in literary field of 2000s. Conclusively it would be correct to assume that decline of women's literature has resulted from the discourse on fundamental shift of literature in 2000s, not caused from inside of women's literature.

The pattern of change in literary field burst out first with the discourse 'The end of modern literature' by Karatani Kojin. In the sphere of novel, faith was put in literature as discussion was developing on the literature 'after' modern literature while the limited historicity of modern literature was being admitted. Second, in the sphere of poem, the pattern of change in literary field grew intensified into debate on 'futurism.' The emergence of futuristic

poems that attacked institutional grammar called lyricism, vaporized single narrator concept of lyrical poems, and transformed poetic world of identity into the world of endless difference, has attempted radical shift of the existing lyric poetry.

The historic situation that women's literature failed to settle down in literary field of 2000s was close to something inevitable, and the assessment that women's literature criticism lost its position and fell into predicament can rather be a positive comment. Only when dismantling the fixed self identity of female, women will be able to achieve self liberation, thus evolving into constructive, performative and processing main actors.

Then, to which direction should the nomenclature of 'women's literature' (which has become extinct) be constituted newly? The following can be proposed for consideration. First, constructing 'feminine thing' which will not revert to female, Second, discarding the institutional nomenclature of 'women's literature' and adopting fresh feminism knowledge concept. Third, forming universality concept anew to secure identity of feminine thing.

Key words : women's literature, sex, gender, literary field of 2000s, Karatani Kojin, futurism, 'weird' women subject, political universalit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